

KRIVET Issue Brief

2013

30호

발행인 박영범 | 발행일 2013년 6월 30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졸자의 병역이행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역 제대 비율이 낮고 보충역 제대 비율이 높음. 현역 제대 비율은 아버지 학력이 고졸인 경우 87.5%, 대졸이상인 경우 84.1%이고, 보충역 제대 비율은 각각 5.5%, 7.5%임.
- 아버지가 보건·의료 관련직에 종사하면 81.6%만이 현역으로 제대하여 평균보다 4.7%p 낮음.
- 현역 제대 대졸자의 월평균임금은 보충역 제대 대졸자보다 12만원 낮음.
- 현역 제대 대졸자는 보충역 제대 대졸자보다 고용률은 3.9%p, 선망직장 취업률은 3.7%p 높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징병제의 공정성과 노동시장 성과 검토

- 최근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병역 의무 이행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징병제 하에서 공정한 병역 의무 부과와 이행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중요함.

| 분석 자료

- 분석자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1차년도 조사자료¹⁾
- 분석 대상
 -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남성들 중 조사시점 현재 병역 미필을 제외한 4년제 대학 졸업자 27,210명, 전문대 졸업자 11,723명, 교육대 졸업자 163명

|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현역 제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전체적으로 대졸자의 85.7%가 현역으로 제대하였음. 6.3%는 보충역으로, 2.8%는 병역특례로 병역을 마쳤으며, 면제비율은 3.0%임.
- 학교유형별로는 4년제 대졸자의 경우 86.7%가 현역으로 제대했고, 6.4%가 보충역으로 제대한 반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83.9%가 현역으로 제대하고 6.0%가 보충역으로 제대하여 4년제 대졸자 보다 현역과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친 비율이 각각 2.8%p, 0.4%p 낮음.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았을 때,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현역 제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의약계열의 현역 제대 비율은 80.5%로 평균보다 5.2%p 낮으며, 병역특례로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특례 중인 비율이 5.8%, 면제 비율이 5.4%로 평균보다 각각 2.8%p, 2.4%p 높음.
 - 교육계열의 현역 제대 비율은 평균보다 4.2%p 낮은 반면, 보충역은 2.4%p, 면제는 2.6%p 높음.

| 각주 |

1)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1차년도 조사는 대학 졸업 후 1년 6개월 혹은 2년 시점에서 조사



KRIVET 모바일용

〈표 1〉 학교유형별·전공별 병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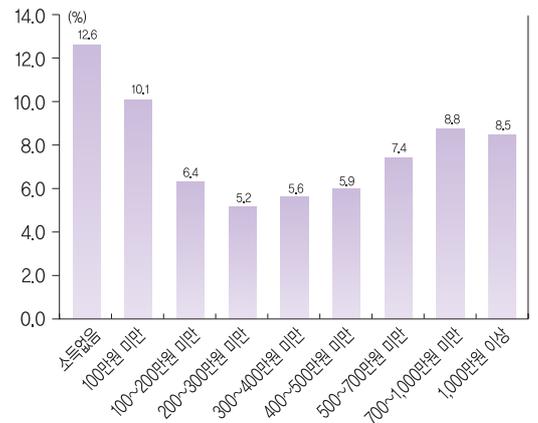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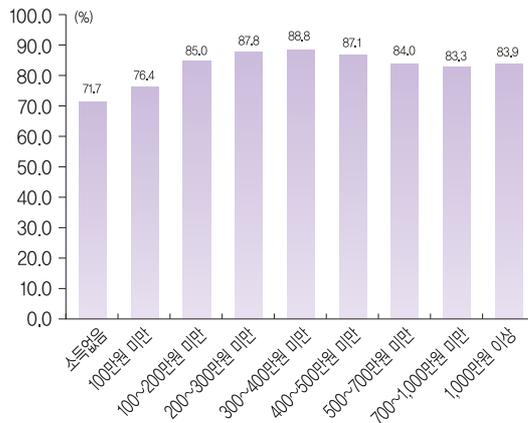
(단위: %)

		현역 제대	보충역 제대	병역특례 제대	의가사 제대	면제	직업군인	병역특례 중
전체		85.7	6.3	2.8	0.6	3.0	1.4	0.2
학교 유형	전문대	83.9	6.0	3.1	0.8	4.0	2.0	0.1
	4년제	86.7	6.4	2.7	0.5	2.5	1.2	0.2
전공 계열	인문계열	85.2	7.0	1.6	0.9	3.9	1.3	0.1
	사회계열	85.3	7.0	1.7	0.7	3.5	1.8	0.0
	교육계열	81.5	8.7	1.3	0.8	5.6	1.9	0.2
	공학계열	86.6	5.5	3.8	0.5	2.2	1.4	0.1
	자연계열	87.5	5.9	2.1	0.6	2.7	1.1	0.2
	의약계열	80.5	6.1	4.3	0.6	5.4	1.6	1.5
	예체능계열	85.2	6.7	2.8	0.8	3.4	1.1	0.1

02 부모의 배경과 무관하게 징집되고 있는가?

중산층 자녀의 현역 제대 비율이 높음.

- 대학입학 당시 부모의 월평균소득별로 현역 제대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현역 제대 비율이 증가하다 400만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감소하는 역U자의 패턴을 보임.
 -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는 자녀의 현역 제대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반면, 중산층 가구는 평균보다 높음.
- 반대로 보충역 제대 비율은 중산층에서 낮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높은 U자 형태를 보임.



[그림 1] 대학입학 당시 부모의 월평균소득별 현역 제대 비율

[그림 2] 대학입학 당시 부모의 월평균소득별 보충역 제대 비율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역 제대 비율이 낮아지고 보충역 제대 비율이 높아짐.

-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 87.5%가 현역으로 제대한 반면, 대졸이상인 경우 84.1%로 3.4%p 낮음. 보충역 제대 비율은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에 비해 2.0%p 높음.
 - 아버지가 중졸이하인 경우도 고졸과 전문대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역 제대 비율이 낮는데, 이는 생계 유지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됨. 또한 소득수준과 건강상태가 일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도 부모 학력이 낮을 경우 현역 제대 비율이 낮은 원인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일 경우 현역 제대 비율이 낮아지고 보충역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소득과 본인 및 자녀의 건강상태가 정(+)의 관계를 보인다는 일반적인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워 공정성 문제가 있음을 시사
- 어머니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평균보다 낮은 82.3%만이 현역 제대하고, 보충역 제대(8.0%), 병역특례(4.3%, 병역특례 중 포함), 면제(3.5%) 비율은 평균보다 높은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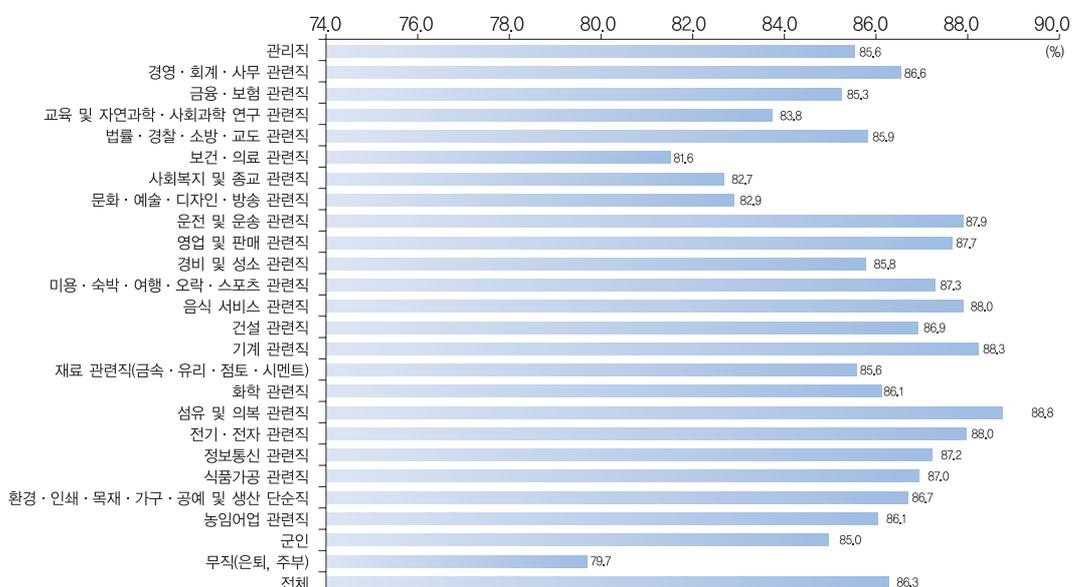
〈표 2〉 부모의 학력과 병역 현황

(단위: %)

	학력	현역 제대	보충역 제대	병역특례 제대	의가사 제대	면제	직업군인	병역특례 중
아버지	중졸이하	84.4	6.4	3.3	0.8	3.4	1.6	0.1
	고졸	87.5	5.5	2.3	0.5	2.6	1.4	0.1
	전문대졸	86.7	5.9	1.9	0.6	3.2	1.4	0.2
	대졸이상	84.1	7.5	3.1	0.5	3.1	1.3	0.3
어머니	중졸이하	85.2	6.4	3.1	0.7	3.2	1.5	0.1
	고졸	87.0	5.8	2.4	0.6	2.7	1.4	0.1
	전문대졸	86.0	5.5	2.6	0.8	3.2	1.7	0.3
	대졸이상	82.3	8.0	3.8	0.5	3.5	1.4	0.5

아버지가 보건·의료 관련직에 종사할 경우 현역 제대 비율이 낮게 나타남

- 대학입학 당시 아버지가 보건·의료 관련직에 종사할 경우 81.6%만이 현역으로 제대하여 전체평균(아버지의 직업을 답한 응답자) 86.3%보다 4.7%p 낮음.
 - 이는 징병검사기준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주 | 전체는 아버지의 직업을 응답한 경우임.

〈그림 3〉 대학입학 당시 아버지의 직업별 현역 제대 비율

03 현역 제대한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

현역 제대한 경우 고용률이 높고 진학비율과 유휴비율이 낮음.

- 현역으로 제대한 대졸자들의 77.0%는 취업상태이고, 8.5%만이 진학하였으며, 취업하지 않고 진학하지도 않은 유휴인력 비율은 14.5%임.
 - 보충역 제대 대졸자들과 면제 대졸자들은 고용률이 낮고 유휴인력비율이 높음.

〈표 3〉 병역 구분별 취업 성과 비교

(단위: %)

병역 구분	취업	진학	유휴
현역 제대	77.0	8.5	14.5
보충역 제대	73.1	10.0	17.0
면제	69.7	8.7	21.6
기타	81.2	7.7	11.1

현역 제대한 경우 보충역 제대 취업자들보다 월평균소득이 12만원 낮음.

-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현역 제대한 대졸자들의 월평균소득은 218만원인 반면 보충역 제대자들의 월평균소득은 230만원임.

- 월평균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였을 때, 보충역의 경우 현역 제대와 달리 1분위(저소득층)와 5분위(고소득층)의 비중이 높음.
 - 보충역 제대 대졸자들의 평균 소득이 높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월평균소득이 높아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5분위에 보충역 제대자들이 많기 때문임을 시사



[그림 4] 병역 구분별 월평균소득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그림 5] 월평균소득 5분위별 현역 제대, 보충역 제대, 면제의 비율

현역 제대한 경우 선망직장 취업비율이 높음.

- 현역 제대한 대졸자들의 선망직장 취업비율은 33.2%로 보충역 제대자 29.5%보다 3.7%p 높음.
 - 현역 제대 대졸자들은 27.6%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공공기관/공기업 정규직으로 2.3%, 공무원 정규직으로 3.4%가 취업
 - 보충역 제대자의 경우 상위소득층(5분위)에 속하는 대졸자와 하위소득층(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뚜렷이 양분되는 경향이 있어 선망직장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보임.

〈표 4〉 병역 구분별 취업 성과 비교 (단위: %)

병역 구분	선망직장			비선망직장		기타 정규직
	대기업정규직	공공기관/공기업 정규직	공무원 정규직	중소기업	기타 비정규직	
현역 제대	27.6	2.3	3.4	46.6	5.9	14.4
보충역 제대	22.2	3.2	4.1	47.3	6.0	17.2
면제	15.6	1.8	3.9	48.3	10.6	19.8
기타	18.5	1.4	15.3	37.0	3.3	24.5

04 시사점

- 가구배경이 좋을수록 현역 제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신체등급과 연동되는 보충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고소득층 자녀에게 높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아버지가 보건·의료 관련직에 종사할수록 현역 제대 비율이 낮아 신체검사에 대한 정보접근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가능성 시사
- 현역 제대 대학 졸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음.
- 중산층 자녀의 높은 현역 비율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녀의 높은 보충역 비율과 면제비율, 그리고 대졸자의 월평균임금 분포에서 현역 제대자들이 평균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양 극단에 보충역 제대자들이 많이 분포한다는 것은 세대 간 부(wealth)의 이전 체계가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양 정 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